불교문화원형은 디지털 콘텐츠 보고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회의원회관서 세미나

"(가칭)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연구원을 설립하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이 3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개최한 '불교전통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의 중요성과 개발방안세미나'에서 전 신씨네 마케팅 담당 박성우씨가 이같이 주장해 화제다.

박씨는 '불교전통문화 콘텐츠 마케팅 & 산업화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왕의 남자의 경우 원작이 있지만 영화로 제작될 때는 프로듀서가 재가공해 역대 관객 동원 2위를 기록하게 됐다"며 "불교의 문화원형이 재가공되기 위해서는 인재 개발이 중요한 만큼 가칭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연구원을 설립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씨는 또 불교문화원형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관리 및 육성 프로그램 구축, 불교계 내부와 외부전문인력 네트워크화, 불교문화의 상업적 발전에 대한 인식변화, 불교문화의 대중화 콘텐츠 개발, 산업화 추진 초기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유동환 겸임교수도 '문화산업시대의 불교전통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의 중요성'이라는 논문에서 "불교문화는 1700년을 이어온 우리문화의 보고이자 불교라는 종교의 신앙대상이지만 21세기에는 첨단 문화산업의 디지털콘텐츠로 활용가능한 문화자원"이라며 "그동안은 불교문화원형을 디지털화해 영구보존을 위한 보존 가치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콘텐츠화해 대중화, 산업화를 통하여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두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문화경제시대 한국불교전통문화의 자산적 가치와 보존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은 저작권법적으로 볼때 관리자에 의한 독점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용가능한 공공재지만 이를 시키기 위해서는 재가공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문화원형사업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 외에도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장

박성우 "개발연구원 설립" 주장 눈길
유동환 "원형 대중화로 가치 높여야"
김재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김봉석 "불교계 참여 제도적장치 절실"

를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스님들의 실연 또는 초상권 및 법문 등은 저작권이 발생함으로 불교계에서도 향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화원형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이 가져오는 고용 및 경제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성균관대 경영학부 김재범 교수는 "미국은 역사가 짧고 문화원형의 자원도 없지만 허리우드가 성공하는 이유는 세계인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 재 가공되기 때문"이라며 "불교를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며 세계화

석호 겸임교수가 '유비쿼터스 환경을 이용한 문화콘텐츠서비스'라는 주제 논문에서 '선 U-City'를 주장해 관심을 끌었고 광운대 이승현 교수가 '불교전통문화 콘텐츠의 3D및 4D 제작 활용방안'이라는 주제 논문에서 불교문화원형이 어떻게 디지털콘텐츠화가 되는지를 보여주어 화제를 모았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봉석 조계종 법무전문팀장이 "완성된 디지털콘텐츠는 수정이 어려운 만큼 스토리텔링이 정확해야 하고 관련 지식이 충분한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는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원형 사업에서 불교관련 콘텐츠의 경우 불교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문화관광위 이미경 위원장, 열린우리당 윤원호, 김재윤, 이영호, 김춘진, 한나라당 정병국, 박찬숙, 박형준 의원, 신임 문화관광부 김장실 종무실장 등 문화정책을 입안하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불교문화원형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불교의원 모임인 이타회장 윤원호 의원은 세미나 주제 발표에 앞서 인사말에서 "문화원형사업이 2002년 5개년 사업으로 시작되어 그동안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불교문화원형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내년부터 2차년도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고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사업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불교계 입장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는 물질과 경제 중심에서 정신과 문화중심시대, 자본과 기술 중심 산업시대에서 지식 · 정보 · 감성이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시대,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변화해가고 있다"며 "조계종에서는 2004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구성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제공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불교문화 대중화를 통해 단절된 불교의 사회적 소통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3

렌즈가 좋아야 화질 선명

디지털 캠코더의 구조 바로 알기

좋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캠코더의 구조를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캠코더는 크게 렌즈부(Lens), 촬상부(Prism), 녹화부(Record) 등 세부분으로 나뉜다. 렌즈부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렌즈는 표준렌즈, 광각렌즈, 망원렌즈로 구분된다. 표준렌즈는 촬영 각도가 46도인 렌즈로 피사체를 육안으로 보는 것과 유사하다. 광각렌즈는 촬영 각도가 60도로 표준렌즈보다 초점거리가 짧다. 넓은 시야를 촬영할 때나 원경에서 근경에 이르는 모든 범위를 선명하게 묘사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한다. 망원렌즈는 촬영 각도가 15도 이하로 멀리 있는 사물을 좀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렌즈의 안쪽에는 조리개라는 것이 있는데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여 렌즈를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조리개를 제어하는 조리개 조절 양은 단계적으로 숫자 앞에 F를 붙여 F1.4, 4, F2, F5, 6, F8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수치가 낮을수록 많은 빛을 받아들여 셔터와 함께 노출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촬영하려는 피사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셔터 스피드는 빛이 필름에 도착하는 시간을 말한다. 동작이 빠른 피사체를 촬영하려면 셔터 스피드가 높을수록 정확한 촬영이 가능하다.

촬상부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피사체의 형상을 촬상판(CCD, Charge Coupled Device)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영상 신호가 녹화부로 이동하기 전단계로 화질을 결정하게 된다. 촬상부는 촬상판, 게인(Gain), 색온도(White Balance)로 구성된다.

촬상판은 렌즈에서 얻은 피사체의 형상을 모아두는 곳이다. 따라서 촬상판에서 지원하는 화소수에 따라 영상의 화질이 달라진다.

게인은 렌즈로 들어온 피사체 밝기를 기계적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db로 표기되는 게인의 수치가 높을수록 밝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게인의 수치를 높여 영상을 강제로 밝게 만들면 화질이 다소 거칠어질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색온도는 캠코더가 피사체의 색상을 빛의 온도로 인식하는 장치다. 예를들어 캠코더의 색온도를 3000캘빈도에 맞춰놓고 형광등이 있는 실내에서 촬영을 하면 영상이 대체로 파란색을 띄게 된다. 만약 백열전구가 있는 실내라면 영상이 누렇게 나타난다. 이는 캠코더가 최초로 인식한 온도와 촬영 장소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녹화부는 촬상부에서 얻은 전기 신호를 자기 테이프나 DVD 같은 저장매체에 녹화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쉽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자단향

오랜동안 향을 사랑하는 이들의 귀한 벗이 되어 온 만복당이 권하는 대표적인 고급 선향기를 고르게하여 정신을 맑게하며, 피로를 풀어 신체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향.
- 규격: 85×160×32
- 무게: 130g
- 주재료: 자단, 백단, 천연솔향

가격: 8000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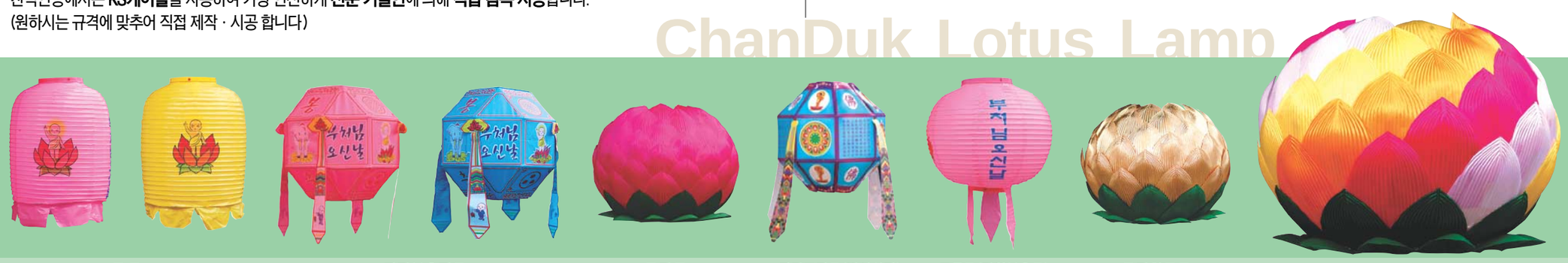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불로전하는자비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팔각조립등(반야심경)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